

東洋의 戰略 概念에 대한 試論

金 暲 綠

(공군사관학교 교수)

1. 머리 말
2. 전략개념의 정의
3. 중국사의 전략개념과 그 인식
4. 한국사의 전략개념과 그 인식
5. 맺 음 말

1. 머리 말

현대 용어에서 전략만큼 다양한 함의와 활용을 보이는 단어도 없을 것이다. 특히, 1960년대 초부터 일본에서 전략개념을 기업경영에 도입하면서 '경영전략', '기업전략', '투자전략', '판매전략', '선거전략', '전략적 사고' 등의 다양한 용어들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접두어만 변화시키면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용어가 적용될 만큼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군사용어로서 전략은 廣義로는 한 국가가 전쟁시를 막론하고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책 내지 과학의 의미로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대전략(Grand Strategy) 등으로 사용된다. 狹義로는 한 국가가 전쟁에서 승리를 획득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운용하는 기술 또는 과학의 의미로 군사전략(Military Strategy) 등으로 사용된다. 협의적인 전략은 군사력의 운용 기술 또는 과학이기에 군사력을 힘으로 이해하면 힘을 적용하는 분야에 전략이 존재하며, 사회 제반분야에 전략용어가 활용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학문 제반 분야는 차지하고, 현대 군사사상을 상정함에 전략이란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실정에서 '전략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존연구는 전략을 설명할 때, 고대 그리스의 언어학적 접근에서 시작하여 18세기 후반 나폴레옹시대로 내려온다. 2000년의 시기를 뛰어넘어 전략이란 개념을 언급하면서도 전략개념이 이론으로써 정립된 것은 나폴레옹 시대 이후로 설명한다. 나폴레옹 이전은 국민과 전쟁이 별 관련성이 없던 용병시대로 근대적인 전략과 전술개념 및 군사제도가 정립된 것은 나폴레옹 시대부터였다는 설명이다. 물론 1789년 프랑스혁명의 발발과 나폴레옹의 등장은 철학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전략이론과 전쟁 수행방법에 있어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전략연구에서 근대전략이론이 정립된 것은 클라우제비츠에서 시작되어 여러 전략사상가에 의해 발전되었다는 설명은 일면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개념에 대한 시대구분은 전적으로 서구 전쟁사를 바탕한 시대구분이며, 개념정의이다. 세계사는 서양사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18세기 근대에 들어서기 이전까지 세계사의 주도적인 흐름은 동양사 특히, 중국과 유목국가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할 것이다. 국운을 좌우하는 고대전쟁에서 중세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였으며, 고대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의 치열하고 복잡한 국가운영방안과 強兵策은 각종 史書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또한, 軍國 등의 전쟁과 철학의 역사적 심원만 따져봐도 서양사를 압도하는 빈도와 발전을 가졌던 동양사에서 전략개념이 없었는가? 비단 'Strategy'를 번역한 전략이란 용어

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략개념에 해당하는 개념과 용어는 무엇인가? 이러한 개념과 용어에 대한 연구가 선행된 상황에서 전략의 역사와 발전을 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전략개념은 공간성과 시대성을 가진다. 공간적으로 동양과 서양, 시대적으로 전근대와 근대의 명확한 구분은 전략개념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동서양의 역사적 전통과 상황이 상이하었던 점에서 전략개념은 그 내용과 성격을 달리하였을 것이다. 전략은 국가목적 달성을 위한 방책내지 운용, 과학이라 한다면 전제조건으로 전쟁개념이 있다. 전쟁만 하더라도 고대사회 이후 중세, 근대화과정을 거치며 급속한 경제규모의 확대와 군사과학기술의 발달은 폭력의 무제한적 행사에 의한 적의 섬멸이라는 형태로 전쟁양상이 변화되면서 시대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였다. 즉 전략개념은 상이한 역사적 전통과 상황에 있었던 동양과 서양이란 공간에 의해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전근대와 근대라는 시대구분이 있어야 한다. 기존 전략에 대한 연구가 고대 그리스에서 2000년의 공백을 거쳐 근대전략개념으로 넘어오면서 전략개념 설명에 많은 한계가 있다. 이에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민족과 국가로 구성되었던 동양에서 전략개념이 어떻게 인식되었으며, 어떠한 용어가 전략개념으로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기존 전략연구에서 정리된 전략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전략개념의 공간성과 시대성을 고려하고자 한다. 공간적으로 동양사회를, 시간적으로 전근대시대를 분석의 범주로 하여 전근대 동양사회에서의 전략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논의의 범위를 줄여 한국의 군사사상을 상정함에 있어 한국사의 다양한 역사주체들이 무엇을 군사라고 인식하였으며, 그 범주는 어떻게 상정하였는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며, 군사의 개념, 범위, 성격 등 군사문제 제반에 대한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주로 한국사에서 군사문제에 대한 연구는 군제,¹⁾ 군역,²⁾ 정치와의 관련성,³⁾ 전쟁 자체와 그 영향,⁴⁾ 한국전

쟁(6·25전쟁)⁵⁾ 등에 대한 주제로 한정되었다. 즉 군사문제 전반을 통괄하는 전략이론, 군사이론, 군사사상 등에 대한 연구는 관심대상이 아니었다.

군사학을 연구하는 방법은 전쟁 현상의 본질을 연구하고 그 현상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과 본질의 관계를 제시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철학적 논의와 이론적 형성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전략도 군사학의 연구방법에서 전략론이라는 이론적 형성을 달성하여야 한다. 기존 연구에서 전략론을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 출발하는 것도 이 책이 전쟁론을 주제로 삼으며 전략과 전술을 설명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클라우제비츠의 경우, 군인으로서의 전쟁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학문적인 연구에 대한 열정으로 『전쟁론』을 탄생시킨 것은 아니며, 자신이 체험한 전쟁의 영향 때문이었다.

본고는 전쟁사를 바탕으로 군사전략과 군사전술, 전략개념의 동양사와 한국사의 인식과 어의적 유사관계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전략개념의 동양사적 始原을 밝히고, 역사적으로 동양사회에서

- 1) 陸軍本部 편, 『高麗軍制史』, 陸軍本部 軍史研究實, 1983; 崔孝軾, 『朝鮮後期軍制史研究』, 新書院, 1995; 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연구소, 『韓國軍制史: 近世朝鮮前記篇』, 육군본부, 1968; 김우철, 『조선후기 지방군제사』, 경인문화사, 2001; 차문섭, 『조선시대 군사관계 연구』,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6 등.
- 2) 千寬宇, 『近世朝鮮史研究』, 一潮閣, 1979; 최정용, 『朝鮮朝 世祖의 國政運營』 신서원, 2000; 李玟洙, 『朝鮮前期 社會福祉政策 研究』, 혜안, 2000; 강성문, 『한민족의 군사적 전통』, 봉명, 2000.
- 3) 이태진, 『조선후기의 정치와 군영제 변천』, 한국연구원, 1985; 최병욱, 『개화기의 군사정책 연구』, 경인문화사, 2000; 서울학연구소, 『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 서울학연구소, 1998 등.
- 4)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편, 『義兵抗爭史』,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1984; 『丙子胡亂史』, 국방부, 1986; 『壬辰倭亂史』, 국방부, 1987; 양재숙 저, 『다시 쓰는 壬辰倭亂 I, II』, 高麗苑, 1994; 姜性文·李宰·李秀·姜錫和·金大中 지, 『韓民族戰爭史總論』, 敎學研究社, 1988 등.
- 5) 戰史編纂委員會 편, 『HISTORY OF U.N. FORCES IN KOREAN WAR II』, 전사편찬위원회, 1973; 『韓國戰爭 要約』, 국방부, 1986; 『韓國戰爭』, 국방부, 1987; 『한국전쟁의 새로운 연구 2』, 국방부, 2002;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1』, 국방부, 2002 등.

전략개념을 어떻게 인식하고 개념화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전략개념의 설명에 있어 서양 중심의 불구적인 모습을 탈피할 것을 기대한다.

본고에서 사용되는 사료는 각종 兵學書, 奏文, 上疏文이며, 이는 당대의 무기체계, 군사인식, 전쟁관, 군제, 국방체계 등을 가장 잘 보여준다. 고대 중국사에 관련해서는 무경칠서 가운데 『손자병법』, 『오자병법』, 『사기』, 각종 諸子百家書가, 중세 중국사에 관련해서는 『25史』, 각종 奏疏文, 문집 등이 활용될 것이다. 한국 고대사에 관련해서는 기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국 중세사는 각종 연대기, 한국문집총간에 수록된 문집, 조선시대 발간된 병서 등을 활용할 것이다.

본고의 구성은 3장으로 되어 있으며, 1장은 기존 전략연구의 전략개념을 바탕으로 근대 전략개념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국가전략, 대전략, 군사전략 등을 구분하여 전쟁과 전략의 상관관계를 정리한다. 2장은 중국사에서 전략개념에 해당하는 용어를 정리·분석함으로써 전략개념을 어떻게 인식하였는가를 살펴본다. 특히, 한족과 북방민족의 치세에 따른 무기체계, 전쟁양상의 변화, 전쟁에 대한 입장을 비교하고, 군사문제를 다루어 정리한 병학체제의 정립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전략개념을 파악한다. 3장은 한국사에서 전략개념에 해당하는 용어의 사용사례를 정리하고, 시대별 전쟁양상의 변화에 따른 군사체계의 변화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전략개념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특히, 고대사,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전반적인 시대변화를 초래하였던 전쟁을 분기점으로 변화양상을 살펴본다.

2. 전략개념의 형성과 정의

전략개념은 전쟁을 전제로 한다. 전략개념의 전제로서 전쟁을 살펴보면, 전쟁의 정치적 성격, 전쟁의 방법과 형태, 전략과 전술의 다양성 등은 시대

와 장소에 따라 여러 가지 특수적, 구체적 표현으로 나타난다.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급속한 경제발전과 군사과학기술의 발달은 전쟁규모를 확대시켰으며, 잠수함의 개발은 군사력의 격렬뿐만 아니라 군사력을 지탱하는 경제의 파괴까지도 전쟁의 주요 수단으로 전환시켰으며, 항공기의 출현은 전선과 후방의 구별을 어렵게 하여 전국민의 노력과 국력을 경주하는 국가총력전 양상을 띠게 하였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정의하여, 전쟁이란 정치적 관계의 연속이며, 목적은 국가의사의 실현이며, 그 실현을 위한 주요수단은 물리적 강제력(즉 군사력)이며, 전쟁목표는 적의 굴복이라 하였다.

전쟁은 어떠한 정치목적을 달성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적합한 군사목표를 결정하여 그 목표달성에 필요한 수단을 선택한다고 할 것이다.

실제 전쟁은 적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힘에 의하여 자기의사를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국제정치는 일면에 있어 권력정치(power politics)로 힘은 지배적 지위를 점유하지만, 국제관계의 근본적인 해결은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한 타협이외에는 불가능하며, 강제에 의한 해결은 일시적 해결에 지나지 않는다. 즉 전쟁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군사적 승리가 곧 전쟁의 목적은 아니다.

이러한 전쟁의 기본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전략개념을 도출할 수 있는데, 실제 전략에 대한 개념규정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에드워드 얼의 언급처럼 전략이라는 말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매우 다양한 의미로 그리고 항상 정확하지만은 않은 상태로 사용된다.⁶⁾ 전략에 대한 개념정의도 그 동안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되었으며, 또한 다양하다. 폰 골츠(Von Goltz)

6) 국방대학원, 『군사전략-이론과 적용-(I)』, 국방대학원, 1984, 38쪽. 본서는 미국의 Army WAR College에서 참고서지로 발간된 "Military Strategy: Theory and Application"을 발췌 번역한 것으로 에드워드 얼 교수의 '전략 용어의 註釋'이란 글에 기재된 내용이다.

원수는 “전략은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부대가 교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포괄적인 방책을 다루는 반면에, 교전 그 자체에 관한 모든 방책은 전술의 영역에서 다루어진다. 따라서 전략을 군사작전 지도학이라고 하며, 전술을 부대 지휘학이라고 일컫기도 한다”⁷⁾고 정의하였으며, 나폴레옹전쟁에 참전하였던 조미니(Jomini)는 “전략은 전장에서 대규모 전투력을 기동시키는 예술이다”고 정의하였으며,⁸⁾ 클라우제비츠는 “전략은 전쟁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전투의 운용이다. 따라서 전략은 전쟁목적에 부합된 하나의 목표를 전체 군사적 행동에 부여해야 한다. 즉 전략은 전쟁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군사적 행동의 목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체의 행동을 결정할 것이다”⁹⁾고 정의하였으며, 리델하트(Liddel Hart)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사적 수단을 배분하고 적용하는 術”¹⁰⁾로, 이종학 교수는 “전략은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모험을 최소한으로 만들기 위해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또 전장에서 유리한 태세와 승리의 결과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책략이며, 전술이란 전장에서 최대의 모험에 도전하여 최대의 승리를 획득하기 위한 방책이다”¹¹⁾이라 정의하였으며, 『연합·합동작전 군사용어사전』에서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얻기 위한 용병술”로서, 요망되는 최종상태의 도달을 통한 목표달성 및 이를 통한 총체적인 승리를 얻기 위하여 세우는 전체적이고 광범위한 구상을 가리킨다.

전략은 그것을 통하여 유리한 결과를 증대시키고 패배의 위험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전쟁에서의 승리에 대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전략의 구상에 있어서는 특정 전장에만 국한된 시야를 지양하고 거시적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그 실시에 있어서는 전장이나 전구를 넘어서 후방을 비롯한 기타 모든 전쟁공간(Battle Space)을 그 활동공간으로 삼는다.

7) Günther Blumentritt 저, 류제승 역, 『전략과 전술』, 한울아카데미, 1994, 24쪽.

8) Günther Blumentritt 저, 류제승 역, 1994, 위 책, 25쪽.

9) Carl von Clausewitz 저, 류제승 역, 『전쟁론』, 책세상, 2004, 151쪽.

10) B. H. Liddel Hart, Strategy: The Indirect Approach(London: Faber, 1967), p. 335.

11) 이종학, 『전략이론이란 무엇인가』, 서라벌군사연구소, 2002, 1쪽.

또한 그 실행수단 역시 전투를 비롯한 무력의 행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크게 국가전략과 군사전략으로 나뉘어진다”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전략개념 정의는 대체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는 그 운용이라는 점으로 모아지며, 목적의 대상이 군사목적이나 국가정책목적이나에 따라 군사전략, 국가전략 등으로 분기된다. 그러나 대상의 특수성과 일반성 폭과 깊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일방적인 개념정의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특히, 전략을 이론화하는 사람과 현실에 적용하는 사람의 입장 차이, 전략을 術的인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과 과학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의 과학성논쟁, 전략의 범주와 분별의 명확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전략에 대한 이해없이 인용만 남용되는 현실 등으로 군사이론이 개념변별이 어렵다는 견해도 있어 시사점을 지적하기도 한다.¹²⁾

이에 본 글에서는 전략개념이 동양에서는 어떻게 인식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다고 동양에서의 전략개념을 정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군사문제를 동양인 특히, 중국인과 한국인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하였는가를 살펴보고는 것으로 논의의 범주를 한정한다.

3. 중국사의 전략개념과 인식

동양사에서 제반 학문분야는 思想과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한국사도 마찬가지이며, 정치·사회 제반 분야를 주도하는 인물들이 대부분 학문적인 소양을 필수로 하는 학자들이기 때문이다. 즉 동양사에서 군사문제는 결코 장수들에게 한정되어 운영되거나 고려되지 않고, 학문적인 소양을 가진 문신들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고려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12) 권재상, 『군사전략 연구의 기초 -류개념들과 변별하기 위하여-』, 공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공군사관학교 교재지원실, 2005, 3~4쪽.

점에서 군사사상, 전략사상 등에 관련해서 서구보다 오히려 학문화, 이론화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동양사의 특징에 대한 전공 학자의 부재와 역사학자의 관심부족 및 현재 군사전문가들의 무지함이 복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동양사라고 하더라도 주로 중국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본격적으로 군사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중국의 역사에서 군사문제와 관련한 특징적인 면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역사는 漢字문화라는 언어체계의 특수성이 있고, 유교와 불교의 생활양식에 의해 생활공간 및 행동양태가 큰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점은 중국의 한족과 주변 국가나 민족과의 관련성을 中華體制라는 보편적 국제질서를 통하여 인식하였다.¹³⁾ 중화체제에 이반되는 주변 국가나 민족에 대해서는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기 보다는 중화체제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방어적인 자세를 유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군사적인 마찰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수시로 중국의 주변 국가에 대한 원정이 있었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정복의 개념이 아니라 변방에서 소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침범이 있으면 응징의 차원에서 시행되었다.

이러한 중화체제는 중화사상을 배태하게 되고, 주변 문화와의 상호 관련성을 중국 중심으로 인식하고 우월적인 자세를 견지하게 된다. 문화란 수용과 독자성의 관계를 기준으로 상호성을 보이는데, 중국은 대체로 주변 문화에 대해 시혜적인 자세를 견지하게 되는데, 이는 중국의 인문·지리적 다양성과 복잡성을 바탕한 것이다. 중국은 다양한 기후대를 영역으로 하고, 생산조건상으로 북방의 田作, 남방의 水稻作에 이르기까지 혼합되어 있어 풍부한 생산력을 자랑한다. 광대한 영역은 높은 생산력을 가지면서 정치적·사회적 통합을 이루기에는 난점이 있었다. 그래서 분할통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정치전통을 가졌으며, 비록 송대 이후 절대 皇帝權의 성립을 이루었지만 행정·군사적으로 일정한 분권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¹⁴⁾

13) 西嶋定生, 『六-八世紀東アジア』 『日本歴史』(古代 2), 東京, 岩波書店, 1967; 全海宗, 『韓國과 中國』, 지식산업사, 1989; 金翰奎, 『古代 中國의 世界秩序』, 일조각, 1988 등 참조.

중국사에서 군사문제를 고려할 때 필수적으로 농경문화에 기반한 한족의 문화권과 목축문화에 기반한 유목민족의 문화권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 정치·경제적인 충돌과 교류도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중국사에 한족의 군사문화와 유목민족의 군사문화가 융합되게 된다. 이는 중국사의 군사문제를 보다 풍부하고 다양하게 하는 작용을 하여 높은 발전단계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단계는 정복왕조로서 유목민족이 중국에 들어와 왕조를 형성하면 보다 체계적으로 융합되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리의 욕구, 안전의 욕구, 생활의 욕구 등 기본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 한편, 인간집단의 경우, 자기보존과 세력증대노력이 존재한다. 국가의 자기보존이란 정치적 독립, 경제적 이익, 사상 및 문화 등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힘에 의한 지배 또는 침해에 대한 자기해방과 방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¹⁴⁾ 이러한 국가의 자기보존의 욕구는 서양과 동양의 경우, 엄격한 차이점을 가진다. 위의 설명이 서양에 적합하다면 동양의 경우는 전통시대에 색다른 전제와 조건으로 그 내용과 성격을 달리한다. 국가들의 관계, 즉 국제관계가 조공체제에 의해 관련성을 가진다. 국가의 독립성을 명시적으로 확보하였던 서구에 비하여 동양 전통사회는 국가의 독립성이 전제되지 않는다. 천자국을 중심으로 주변국은 번국이라 하여 형식적이지만, 천자(황제)의 책봉을 받아 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였다.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 의례적인 측면은 단순 의례와는 차이가 있다. 이는 국가의 격을 규정하고, 국제관계를 엄격한 상하관계로 서열화하였다. 실제 국익의 측면에 있어서 자국의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에서 국가간의 관계에서 일정한 손실과 사대는 감수하였다.

이러한 중국사에서의 군사문제가 가지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군사용어를 살펴보도록 한다. 軍事는 兵, 軍, 武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어 語義는 다양하다. 통상적 고대문헌의 兵, 軍은 軍隊組織(military organization), 전

14) 백기인, 『중국군사사상사』, 국방군사연구소, 1996, 39~41쪽.

15) 李基遠, 『改訂 軍事戰略論 -한국의 안보환경을 중심으로-』, 동양문화사, 1985, 17쪽.

쟁(war), 군사자원(military requirement: 무기장비[military equipment], 전투원[soldier], 군사이론[military theory], 군사기술[military technology])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파악된다.¹⁶⁾ 개별적으로 兵은 무기, 용사, 싸움(戰), 戰術, 防禦 등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중국 고전에서 확인되는 兵은 兵器 혹은 兵械의 의미,¹⁷⁾ 兵器의 의미,¹⁸⁾ 싸우다·치다의 동사적 의미,¹⁹⁾ 兵法의 의미,²⁰⁾ 勇士·軍人·部隊의 의미²¹⁾ 등이다. 즉 포괄적인 뜻으로 무기체계에서부터 전쟁자체와 전쟁술까지 포함한다. 兵과 비슷하게 사용되는 용어로 軍이 있다. 軍은 부대의 단위, 兵事, 兵士, 주둔지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고전에서 확인하면 구체적인 부대의 수효와 구성 등에 대한 설명으로 고대 周나라 시절에 軍은 12,500명을 기준으로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²²⁾ 제나라는 10,000명을 軍으로 편성되었다.²³⁾

전략이란 용어를 확인해 보기 전에 한자어는 기본적으로 표의문자로 개별 한 글자마다 고유의 의미와 음이 있다. 먼저 戰을 살펴보면 兵器를 잡고 다투는 의미를 가진다.²⁴⁾ 이를 보충하는 의미로 싸움, 위급한 일 등의 의미로 인식되었다.²⁵⁾ 戰에서 파급된 成語로 戰略, 전술, 전법 등을 살펴보면 전략은 전쟁의 계략, 전쟁의 임기응변,²⁶⁾ 작전계획, 戰術 등으로 인식되었고, 戰術은 전쟁의 방법, 작전의 術策, 전법, 용병술, 군대운용의 方術²⁷⁾

16) 백기인, 『중국군사사상사』, 국방군사연구소, 1996, 12~13쪽.

17) 『說文』“兵器也 從口持斤 并力之貌”.

18) 『廣韻』“兵 兵器也”.

19) 『禮記』月令, “小兵時起”(注)“參伐爲兵”.

20) 『戰國策』秦策, “公不論兵必大困”(注)“言不以兵法治士”.

21) 『左氏』昭, 十四, “簡上國之兵於宗丘”(疏)“戰必令人執兵 因卽名人爲兵”.

22) 『說文』“匍 圓圍也 四千人爲軍 從包省從車 車兵車也”(段注)“於字形得圓義 於字音得圍義 許書當作萬二千五百人爲軍”; 『周禮』地官, 小司徒, “五師爲軍”(注)“師二千五百人 軍萬二千五百人”.

23) 『國語』齊語, “萬人爲一軍”(注)“萬人爲軍 齊制也”.

24) 『說文』“戰 鬪也 從戈單聲”; 『孔子家語』困誓, “奮戟將與之戰”.

25) 『小爾雅』廣言, “戰 交也”; 『呂覽』察微, “戰大機也”; 『漢書』鼂錯傳, “戰危事也”.

26) 『大漢和辭典』卷5, 戰, “戰爭のはかりこと. 合戰のかけひき”.

등으로 인식되었고, 戰法은 작전의 방법²⁸⁾으로 『사마법』에서는 전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싸움(작전)의 방법은 먼저 사기를 진작시킨 다음에 군령을 발표하여 상벌에 대한 엄격한 시행을 강조하고, 부하를 대함에 온화한 얼굴로 대하고, 부드러운 말로 인도하며, 때로는 경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때로는 부하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각자의 직무에 전념하도록 유도한다. 적지에 들어가 적을 제압하게 되면 공로가 있는 이에게 관직을 맡겨 주어 다스리게 한다. 이것이 전법이다.”

戰略이란 용어 자체는 중국사에서 고대부터 사용되었다. 물론 현대 전략 개념과 일치되는 용례는 아니며, 그 쓰임이 다양하였다. 먼저 正史類에서 살펴보면, 『宋書』에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5 家에 1명의 長, 100 家에 1명의 師를 두어 13세에서 20세에 이르는 남자를 교육하도록 하고, 경학뿐만 아니라 무예를 닦도록 하였다. 즉 경학을 통하여 忠孝仁義의 禮와 謙讓·勤恭을 닦고, 兵學과 싸우는 方略을 익히도록 하였다. 전략은 군사적인 범주에 한정되어 방책의 일환으로 인식되었다.²⁹⁾ 宋代 康定이 西征에 나서며 전쟁의 방책을 올렸는데, 拒馬槍陣法을 아뢰었는데 山川險隘의 이로움을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전략이 역시 전쟁의 방책이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³⁰⁾ 胡林翼이 청말에 전쟁에 임하며 여러 군대를 소집하여 전투에 대비하였는데, 曾國藩과 더불어 여러 부

27) 『大漢和辭典』卷5, 戰. “戰爭の方法. 作戰の術策”.

28) 『司馬法』定爵. “凡戰之道 既作其氣 又發其政 假之以色 道之以辭 因懼而戒 因欲而事 踏敵制地 以職命之 是謂戰法”.

29) 『宋書』卷82, 列傳 第42, 周朗. “欲爲教者 宜二十五家選一長 百家置一師 男子十三至十七 皆令學經 十八至二十 盡使修武 訓以書記圖律 忠孝仁義之禮 廉讓勤恭之則 授以兵經戰略 軍部舟騎之容 挽強擊刺之法”.

30) 『宋史』卷326, 列傳 第85, 郭諮. “康定西征 諮上戰略 獻拒馬槍陣法 其制利山川險隘 以騎士試上前 擢通判鎮戎軍 募兵教習”.

서의 장수들을 전략을 지휘하였다. 이때 전략이란 앞의 적에 대해 모략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한정되는 의미였다.³¹⁾ 전투에 있어 모략을 의미하는 사례는 청대 胡林翼 휘하의 多隆阿가 戰略과 威望이 가장 두드러졌다는 기록에서 다시 확인된다.³²⁾ 청대까지 전략이란 용어는 중국사에서 다양하게 확인되지만, 현대적인 의미의 전략개념이 아니라 軍事方策, 戰鬥謀策, 戰爭術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후 청말부터 전략의 현대적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853년(咸豐 3) 澁統道人에 의해 편찬된 『水陸功守戰略秘書七種』은 20冊으로 주요 목차를 ‘兵法心要’, ‘百戰奇略’, ‘兵法心略’, ‘天下沿海形勢圖’, ‘塞外行軍指掌’, ‘金湯十二籌’, ‘醫方備要’로 구성하였다. 본서는 군사전략의 개념으로 전략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³³⁾

중국사에서 군사문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군사문제에 관련한 서적의 존재여부이다. 서양에서는 국민전쟁의 전형이라 할 프랑스혁명전쟁 이후 전술상의 변화나 군사기술상의 변화가 수반되면서 군대의 외형은 물론 근대적인 군사이론이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다. 1970년대 말 동양권에서도 군사학을 기능과 목적(가치)을 기준으로 구획하고, 세부적으로 각 분야를 분화시켜 설명하는 논의가 제기된 바 있었다.³⁴⁾ 중국사의 측면에서 보면 전법을 중심으로 하는 적지 않은 군사이론에 관한 접근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시대별 중국사에서 군사문제를 인식한 군사사상적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先秦時代는 諸子百家의 사상이 발전하여 국가운영에 있어 군사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儒家는 중국문화사상의 연원을 이루었으며, 孔子

31) 『清史稿』 卷46, 列傳193, 胡林翼. “林翼集諸軍精銳全力備戰 欲一鼓殲之 與曾國藩部署諸將 指揮戰略 謀前敵總統 以多隆阿謀勇兼優 而鮑超素不相下 手書勸勉 十數往復 始定議”.

32) 『清史稿』 卷49, 列傳196, 多隆阿孫壽長. “胡林翼調集諸將爲備 多隆阿已授福州副都統 戰略威望最著 遂令前敵諸軍並受節制 歲將盡 賊分三路至 鮑超屯小池驛 蔣凝學屯龍家涼亭 多隆阿自以馬步各隊駐新倉 朱品隆與唐訓方合軍仍圍太湖 初戰 中賊伏 頗有傷亡”.

33) 『水陸功守戰略秘書七種』 奎中 4884-v.1-20.

34) 백기인, 위 책, 15쪽.

· 孟子·荀子로 대표되는 사상가들은 王道政治를 통하여 백성들의 의식주를 풍족하게 함으로써 군사적 풍족함을 도모할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군사적 대비는 중시하되 군사행위는 신중하게 할 것을 주장하였다.³⁵⁾ 유가의 사상가들은 군사문제에 있어 管仲을 숭상하고 周公을 모범으로 하였다. 군사는 浩然之氣를 배양하고, 仁者無敵의 개념으로 내부적 안정을 도모하고 대외적 배타주의 관점을 견지하였다. 謀略이란 용어를 통하여 군사전략을 지칭한 측면에서 군사문제를 정치적 관점에서 인식하였다.³⁶⁾

心理作戰의 鼻祖라 할 道家의 군사사상은 老子와 莊子로 이어지면서 ‘慈故能勇’의 인식이 형성되었다. 즉 물질적인 측면보다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무기체계 자체보다 군사사상의 무장을 강조하여 心理戰, 思想戰, 謀略戰의 분야를 우선시하였다.³⁷⁾ 『노자』에서 전략적 차원에서 “正으로써 나라를 다스리고, 奇로써 兵을 운용한다”는 언급을 하여 用兵과 治國을 그 방법상으로 구별하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인식하였다.³⁸⁾

墨子·孟勝·田襄子·腹䟽 등의 사상가로 구성된 墨家は ‘兼愛’와 ‘非攻’의 개념으로 군사문제를 인식하였다. 목자에 의하면 천하의 혼란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兼相愛交相利’를 중시하였다. 국가 단위의 혼란, 즉 전쟁이나 군사분쟁의 경우도 상대국에 대한 인정과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군사대립보다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상호 국가이익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兼愛’의 개념은 다른 측면에서 ‘非攻’의 개념으로 연결된다. ‘비공’은 현대의 개념으로 ‘반침략’이라 할 것이다. 목자는 백성들의 행복을 중시하여 非戰論을 주장하였다. 목가의 非戰論은 儒家의 仁政과 일맥상통한다. 목가의 군사사상에 있어 특징으로 非

35) 魏汝霖·劉仲平 著, 『中國軍事思想史』, 黎明文化事業公司, 1979, 8~15쪽.

36) 魏汝霖·劉仲平 著, 위 책, 22~31쪽.

37) 魏汝霖·劉仲平 著, 위 책, 32~45쪽.

38) 『老子』 下編, 五十七章. “以正治國 以奇用兵 以無事取天下 以道治國則國平 以正治國則奇正起也 以無事則能取天下也 上章云其取天下者常以無事及其有事 又不足以取天下也 故以正治國則不足以取天”.

戰論을 주장하되, 非戰을 위한 전제로 군사적 대비의 강조를 들 수 있다. 목자는 전체 국민을 총체적으로 활용한 작전개념(내부적인 단합을 강조함), 방어위주의 군사전략, 각종 무기체계의 제작, 군사교육, 군법의 엄정한 집행, 사상적 무장을 위한 군대내의 종교 등을 강조하였다.³⁹⁾

춘추전국시대에 다양한 사상적 흐름 가운데 法家만큼 군사사상에 많은 관심을 가진 흐름도 없을 것이다. 管仲과 高鞅으로 대표되는 법가는 국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도 집행을 위하여 엄격한 법을 강조하였다. 특히, 관중은 군사정책에 있어 政略原則과 戰略原則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정략원칙으로 외부적 팽창보다 내부적 修繕을 강조함으로써 用兵에 있어 安定을 중시하였다.⁴⁰⁾ 強兵보다 富國을 우선시하고, 富國보다 백성을 부유하게 함을 우선시하였다.⁴¹⁾ 즉 군사문제에 접근함에 먼저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이후에 군사병비를 치력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동시에 稅源을 배양함으로써 국가잠재력을 키우고 백성들의 富를 축적시키는 정책을 주장한 것으로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이후 역사에서 확인된다.

전략원칙으로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고자 하였다. 당시 齊나라가 霸國으로 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쟁을 준비하되 싸움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지 않았던 점에서 확인되며, 간혹 用兵의 경우에도 濫伐을 행하지 않았다. 無形의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盟會를 적극적으로 運用하였으며 外交戰의 승리를 바탕으로 제나라를 패자의 위치에 올려놓았다.⁴²⁾ 관자가 고려한 무형의 전쟁은 상업전쟁, 즉 경제전쟁까지 고려한 것으로 경제적 우위를 바

39) 魏汝霖·劉仲平 저, 위 책, 50~60쪽.

40) 『管子』 卷8, 大匡第20, 內言3. “政成國安 以守則固 以戰則疆 封內治 百姓親 可以出征四方 立一霸王矣”.

41) 『管子』 管子原序. “管子書務富國安民 道約言要可以曉合經義”; 卷16, 小問第51, 禱篇2. “桓公問管子曰 治而不亂 明而不蔽 若何 管子對曰 明分任職則治而不亂 明而不蔽矣 公曰 請問富國奈何 管子對曰 力地而動於時 則國必富矣”.

42) 『管子』 卷6, 兵法第17, 外言8. “數戰則士罷 數勝則君驕 夫以驕君使罷民 則國安得無危 故至善不戰”.

탕으로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고자 하였다. 전략원칙의 두 번째는 ‘兵民合一’의 원칙이다. 실제 관자는 제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內政을 진작함으로써 軍수를 세웠다. 구체적으로 향촌마다 향관을 두어 행정과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향촌을 自治組織化하여 군대조직이자 정치조직, 경제조직, 사회조직으로 기능하도록 하였다.⁴³⁾

法家の 사상체계에서 나오는 개념을 전쟁양상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經濟戰(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國富를 실현하고 國富는 強兵으로 이어진다는 개념),⁴⁴⁾ 政治戰(民本을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고 다스림에 法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는 개념),⁴⁵⁾ 軍事戰(총체적인 승리를 목적으로 함),⁴⁶⁾ 文化戰(禮·義·廉·恥를 중시함)⁴⁷⁾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군사사상은 呂尙의 군사사상, 孫武의 군사사상으로 이어진다. 『六韜』의 저자인 여상은 政略과 戰略을 구분하여 인식하였으며, ‘文韜’, ‘武韜’, ‘龍韜’, ‘虎韜’, ‘豹韜’, ‘犬韜’의 6분야로 구분하였다. ‘文韜’(文師, 盈虛, 國務, 大禮, 明傳, 六守, 守土, 守國, 上賢, 舉賢, 賞罰, 兵道), ‘武韜’(發啓, 文啓, 文伐, 順築, 三疑)은 정략에 해당되는 정치전략이자 국가전략이라 할 것이다. 나머지 ‘龍韜’(王翼, 論將, 選將, 立將, 將威, 勵軍, 陰書, 陰符, 軍勢, 奇兵, 五音, 兵徵, 農器), ‘虎韜’(軍用, 三陳, 疾戰, 必出, 軍略, 臨境, 動靜, 金鼓, 絕道, 略地, 火戰, 壘虛), ‘豹韜’(林戰, 突戰, 獻強, 敵武, 山兵, 澤兵, 少衆, 分險), ‘犬韜’(分合, 武鋒, 練士, 教戰, 均兵, 武車, 士, 武騎士, 戰車, 戰騎, 戰步)는 구체적인 군사전략 및 전술, 무기체계, 군제 등에 관

43) 『管子』 卷5, 八觀第13, 外言4.

44) 『管子』 卷2, 七法第6, 經言6. “地不辟則六畜不育 六畜不育則國貧而用不足 國貧而用不足則兵弱而士不厲 兵弱而士不厲則戰不勝而守不固 戰不勝而守不固則國不安矣”.

45) 『管子』 卷1, 牧民第1, 經言1. “政之所興在順民心 政之所廢在逆民心 民惡憂勞我佚樂之 民惡貧賤我富貴之 民惡危隲我存安之 民惡滅絕我生育之”.

46) 『管子』 卷9, 霸言第23, 內言6. “德義勝之 智謀勝之 兵戰勝之 地形勝之 動作勝之 故王之”.

47) 『皇清文穎』 卷首1, 廉靜論. “蓋禮義廉恥 管子所謂 國之四維”.

런된 내용으로 되어 있다. 六韜의 韜는 원래 ‘藏’하는 것으로 활이나 검 따위를 싸는 주머니를 뜻한다.⁴⁸⁾ 즉 비결의 의미가 있다. 다른 일반 병서와 달리 육도는 군사문제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교육 등 전반적인 분야를 군사문제와 연결시켜 분석한 점에서 특색이 있다.

孫武와 孫臏에 의해 완성된 『손자병법』은 중국사의 군사사상과 전략개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손자병법』의 각편을 통하여 군사사상과 전략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⁴⁹⁾ ‘計’·‘作戰’·‘謀攻’·‘軍形’·‘兵勢’·‘虛實’·‘軍爭’·‘九變’·‘行軍’·‘地形’·‘九地’·‘火攻’·‘用間’ 등 13편으로 구성된 『손자병법』은 각 편별로 다양한 전략개념을 보여준다. ‘計’편에서는 和平主義, 總體戰, 謀略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國防計劃을 제시한다. ‘전쟁을 비롯한 군사문제는 나라의 중대한 일이다’는 방침하에 施政計劃으로 五事(道, 天, 地, 將, 法)와 七計(主, 將, 天地, 法令, 兵衆, 士卒, 賞罰)를 제시하고, 전쟁계획으로 欺敵, 乘敵, 攻敵 등을 제시하였다. 즉 전쟁이전에 승산을 계산하여 승패가 결정된다는 입장에서 施政 및 戰爭計劃의 치밀함과 신중함을 강조하였다.

‘作戰’편에서 손자는 動員計劃을 제시하고, 작전문제의 근본은 국력에 대한 정확한 계산에 있다고 인식하였다. 군사전략에 있어 국력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후방지원의 지속여부, 전쟁지역에서의 동원여부 등을 고려함으로써 持久戰과 速戰速決의 병행을 주장하였다. 전쟁의 수행에 있어 立案假定으로 十萬의 軍士와 하루 軍費 千金을 제시하고, 動員體系와 作戰의 관련성에 주목하였다. 또한 전쟁지역에 대한 동원을 군사와 장수로 구분하고, 군수지원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군사지원 및 동원을 강조하였다.

국가전략에 해당하는 ‘謀攻’편에서 손자는 政治作戰, 軍事作戰으로 구분하고,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킨다는 目的을 제시하였다. 순서에 따라 제일

48) 『六韜直解』(奎중 2210).

49) 魏汝霖·劉仲平 저, 위 책, 87~116쪽. 이하 손자의 군사사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 책을 참조하였다.

먼저 취할 것은 사전에 적의 의도를 간파하고 이를 쳐부수는 일이라 주장하였다. 그 다음은 적의 동맹 관계를 분단시켜 고립시키는 일이며, 그 다음의 방법이 싸우는 일이라 보았다. 그리고 최하의 방법이 성을 공격하는 일이니, 성을 공격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취하는 방법으로 보았다. 여기서 적의 의도를 간파하고 격퇴시키는 것과 동맹관계를 분단시키는 것은 정치전략에 해당할 것이며, 직접 전투를 하거나 적의 성을 공격하는 것은 군사전략에 해당할 것이다. 또한 統帥權에 관련하여 군주가 軍事를 잘 모를 경우에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적절한 통수권행사를 강조하였다.

구체적인 군사전략을 제시한 ‘軍形’편에서 손자는 군사전략에 있어 최우선적인 고려는 안전이라 하였다. 직접적인 전투행위를 회피하고, 적을 이길 조건이 형성된 시점에서 싸울 것을 주장하였다. 戰略指導로 謀略戰을 제시하고, 수비에 있어서는 적이 침공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공격으로 들어가면 속공으로써 적이 수비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을 모략으로 생각하였다. 전략계획의 방책을 度(국토의 넓이를 재는 것), 量(자원의 많고 적음), 數(인구의 많고 적음), 稱(전력의 강하고 약함), 勝(승리와 패배의 예측)이라 하였다. 즉 지형에 따라서 도가 생기고, 도에 따라서 양이 생기고, 양에 따라서 수가 생기고, 수에 따라서 칭이 생기고, 칭에 따라서 승이 생긴다는 논리였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군대는 일을 견주는 것과 같다. 승리하는 자의 싸움은 마치 가득 차 있는 붓물을 천이나 되는 골짜기에 터놓는 것과 같은 형세라고 생각하였다.

戰爭藝術에 해당하는 ‘兵勢’편에서 손자는 군사조직의 엄정함과 적절하고 상황에 따른 운용을 강조하였다. 많은 군사로 구성된 군대를 적절히 운용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군율과 군기를 두어야 하며, 奇正 및 虛實에 따른 변화를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병세의 基本準則으로 조직(分數와 形名)과 운용(奇正과 虛實)을 제시하고 전쟁예술로 天地와 같은 무궁한 발상과 적용을 요구하였다. 손자가 말하는 分數란 군의 조직, 편성을 착실히 하기 위

한 것이며, 形名이란 군의 지휘, 명령 계통을 확립시키는 것이며, 奇正이란 변화무쌍한 전법을 사용하는 것이며, 虛實이란 충실한 전력으로 적의 허를 찌르는 것이다. 손자는 전쟁을 정공법으로 싸우고, 기공법으로 승리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5가지 소리와 5가지 색채가 무궁한 변화를 보이듯 전쟁에 있어 상황에 따른 기발한 발상과 적용을 강조하였다. 또한, 혼란은 다스림에서 생기고, 겁은 용기에서 생기고, 약함은 강한 데서 생긴다고 보고, 안정과 혼란의 여부는 군의 조직과 편성에 따르며, 용감함과 두려움은 군의 태세에 따르며, 강함과 약함은 군의 행동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전쟁에 능한 자는 승리를 전세에서 구하고, 사람의 능력을 닮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인재를 精選하여 전세에 적응케 하고, 휘하 장병을 지휘하도록 하였다.

현대의 기동작전 개념에 해당하는 ‘虛實’편에서 손자는 主動과 機動으로 전술을 구분하였다. 즉 적의 내실있는 측면을 피하고, 약한 부분을 공격함으로써 승리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인 작전의 운용 측면에서 손자는 행군, 공격, 방어, 추격, 퇴각 등으로 구분하여 적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행군, 공격, 방어하고, 허술한 곳으로 추격하고, 신속하게 퇴각할 것을 주장하였다. 즉 움직임과 대기함에 있어 無形, 無聲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군사운용의 요체로 시간과 공간의 적절한 배합과 수색·검사를 통하여 시간과 공간을 인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작전목표를 제시한 ‘軍爭’편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은 장수가 군주의 명령을 받아 백성을 징집하여 군대를 편성하고, 전선에 나아가서 진지를 구축하고 적군과 대치하는 것이므로 모두 어려움이 있어 결코 승리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승리의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迂直의 計’를 써서 불리한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쟁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으로 보급의 어려움, 기동의 부담, 주변 국가에 대한 외교의 어려움, 산천에 대한 지형정보 인지 등 다양하였다. 그러므로 행군시에는 신속하되 주변을 고려하고, 공격과 방에 있어 신속한 공격에 대신

같은 방어를 하며, 싸움터에 대한 지형정보는 京鄕을 분배하여 성곽과 지형의 이로움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작전목표로 군사의 측면에서는 사기의 진작, 지휘관의 측면에서는 명확한 작전결심, 동원측면에서는 전력을 총동원하되 적절한 배분을 제시하였다.

統帥術에 해당하는 ‘九變’편에서 用兵의 法으로 군주로부터 백성을 할당 받아 圯地(지형이 좋지 못하여 작전 행동이 곤란한 곳), 衢地(요충지로 외교력이 필요한 곳), 絕地(연락에 어려워 불편한 곳), 圍地(산천으로 둘러싸인 곳), 死地(진퇴가 어려운 곳)에서 적절한 용병의 방법을 달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길에도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고, 적에도 싸워서 안 되는 적이 있고, 성에도 공격하여 서는 안 되는 성이 있고, 땅에도 다투어서 안 되는 땅이 있고, 임금의 명령에도 들어서는 안 되는 명령이 있다. 그러므로 지휘관은 상황변화에 따라 능통하게 용병을 달리하여야 한다. 지휘관은 圯地, 懼地, 絕地, 圍地, 死地, 塗, 軍, 城, 地의 전술을 알고 병사들의 활용을 원활히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자칫 지휘관이 빠지기 쉬운 5가지 위험으로 헛되이 필사적이 되어 적의 함정에 빠지거나, 살려고 허둥대어 포로가 되거나, 조급하여 적의 계략에 빠지거나, 너무 청렴결백하여 모욕을 당하거나, 지나치게 백성을 아껴 번거로움에 빠지게 된다고 경계하였다.

用兵術을 제시한 ‘行軍’편에서 군대를 주둔하는 방법을 주변 환경에 따라 山地, 河川, 沼澤, 平地, 特種地形, 衛生 등으로 구분하고, 적을 상대하여 군사를 운용하는 방법을 地形, 鹿土, 軍使, 敵情, 亂軍敗將 등으로 구분하여 적절한 용병술을 제시하였다. 地形學에 관련된 ‘地形’편에서 지형과 작전의 관련성을 通形, 掛形, 支形, 陰形, 險形, 遠形으로 구분하여 시간적 선점여부, 지형의 높낮이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손자는 지형을 군사적 주요 조건으로 인식하고 지형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통하여 선점 및 활용을 강조하였다. 地略學에 해당하는 ‘九地’편에서 지략을 散地, 輕地, 爭地, 交地, 衢地, 重地, 泛地, 圍地, 死地 등으로 구분하고, 內線作戰과 外

線作戰의 개념으로 구체적인 전술과 용병의 논리를 지형에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아군은 지휘통신을 유지하되 적은 지휘통신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형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사작전의 수행이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무기체계에 해당하는 '火攻'편에서 화공의 종류를 구분하고 이를 평시에 충분히 준비하여 국가안보를 확보하고 군사력을 보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보전에 해당하는 '用間'편에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用間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손자의 군사사상은 단순한 군사문제에 한정된 측면에서 벗어나 정치, 사회, 경제, 외교 등의 총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손자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5가지 요소로 정치, 天時, 지리, 將帥, 法制를 제시하였다. 군주는 정치적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군주와 전쟁의지를 일치시킴으로써 국가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기상이나 기후 등 자연조건, 영토와 작전지역의 환경 등 각종 지형적인 조건, 지략과 재능을 겸비한 장수, 군의 조직과 편제, 지휘통신 규정, 통제와 직무의 합리적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쟁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군사전략의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전략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전쟁을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군사전략으로 萬全主義, 慎重論, 速戰速決 등의 전략이 해당된다.

춘추전국시대 다양한 군사사상과 논쟁은 秦·漢의 등장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진나라는 전국을 통일한 뒤 耕戰主義에 입각한 군사제도를 확립하였다. 경전주의는 兵農一致의 다른 표현으로 농업경제에 기반한 국가운영을 통하여 국가안보를 위한 병력동원 및 훈련체제를 구축하였다.⁵⁰⁾ 경전주의는 전시와 평시에 國家安保 및 富國이라는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백성들을 총동원체제로 편제한 것이었다. 한나라가 등장하면서 중국의 군사전략 및 군사사상은 遠略으로 전환되었다. 전통적으로 수성과 방어위주의 군사적 전통과 달리 적극적인 군사활동을

50) 魏汝霖·劉仲平 저, 위 책, 120~122쪽.

통하여 국가안보를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한무제의 西方정벌 및 동북 아시아 정벌과정이 원탁에 의해 수행된 군사활동이었다. 특히 흉노의 강성함은 한나라가 遠略을 추진시키도록 한 이유가 되었으며, 한무제의 礪堡政策을 초래하였다.⁵¹⁾ 조보정책은 농경민족이었던 한족이 유목민족이었던 흉노를 비롯한 북방민족의 침략에 대비하여 국경선을 따라 수많은 城堡를 구축하여 방어하고, 때에 따라 공세적인 정벌활동과 수성활동을 병행하였던 군사정책이었다.

진한시대의 주목되는 전략개념으로 『兵略訓』에서 잘 나타난다. 『병략훈』은 용병에 관련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는데, 용병의 목적을 군사적 확장이나 경제적 이익에 두지 않고 혼란을 제거하고 백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두었다.⁵²⁾ 『병략훈』에서 용병의 수준을 세단계로 구분하는데 仁義를 행하고 德惠를 베풀어 신하와 백성이 화합하여 국가보안에 총동원체제를 구축하는 수준, 부국강병에 입각하여 적군과 대결하기 전에 제압하는 수준, 직접적인 교전의 수준이다. 이 가운데 인의를 바탕으로 한 수준을 최상책으로 설정하고 유혈상전을 초래하는 교전의 수준을 최하책으로 보았다.

국가통치체제에서 외부적으로 흉노의 지속적인 침략과 내부적으로 환관체제의 혼란으로 삼국시대가 초래되고 북방지역을 통일한 曹操는 魏나라를 세운다. 이후 三國時代에서 兩晉南北朝時代에 이르기까지 군사적 측면에서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시대를 胡漢體制로 지칭하며, 분열의 양상에서 대립하였지만 전체적으로 統一體制를 지향하였다.⁵³⁾ 호한에 대한 분리통치를 기본으로 하되 호족군주는 통일을 지향하였다. 이에 대해 漢人士族들은 華夷觀念을 바탕으로 대립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시기의 군사사상은 현실적인 군사제도 및 무기체계의 혼합으로 인하여 일관성을 가지지

51) 魏汝霖·劉仲平 저, 위 책, 134~136쪽.

52) 『淮南子』兵略訓. “古之用兵者 非利土壤之廣 而貪金玉之略 將以存亡繼絕 平天下之亂 而除萬民之害也”.

53) 朴漢濟, 1993, 『胡漢體制的 展開와 그 構造』 『講座 中國史』 II, 지식산업사, 63~66쪽.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군사사상을 명시하는 저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확인되며, 특히 개별 국가의 존립시기가 단기간에 그친 점이 크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목민족의 기마전술이 농경민족의 수성 전략과 혼합되면서 실전에 있어 군사적 발전은 크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수백년에 걸친 분할할거시대였던 위진남북조시대를 마감한 隋나라는 주로 남쪽으로 통일전쟁을 수행하고 북쪽으로 돌궐족의 침입을 저지하고 북방민족에 대해 이간책을 시행하였다. 즉 北守南攻政策을 바탕으로 활발한 군사활동을 전개하였던 수나라는 대운하의 건설, 고구려원정 등을 시행하여 勞役과 軍役의 과다함으로 사회전반적인 위기를 초래하였다. 수나라 말기의 혼란을 수습한 李淵, 李世民의 당나라는 豪族의 發豪를 미연에 제거하기 위하여 節度使制度를 시행하여 주변국의 침략에 대응하는 복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오랜 호한체제의 혼란을 경험하였던 중국인은 文治主義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隋唐時代의 군사사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저서로 『李衛公問對』과 『太白陰經』이 있다. 무경칠서의 한권이기도 한 『이위공문대』는 당태종이 兵事에 관하여 李靖에게 묻고 이정이가 이에 대답한 이야기를 간추린 것이다.

『이위공문대』의 군사사상은 그 내용상 손자방법에 근거한 것으로 시대적 변화과정을 반영한다고 할 것이다. 핵심적인 군사관념은 非戰思想이라 할 것이다. 즉 군사문제에 관련하여 절제에 입각하여 제한된 군사활동을 강조하였다. 전쟁에 관련해서도 적과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을 상등으로, 백전백승하는 것을 중등으로, 참호를 파고 성벽을 통하여 방위하는 것을 하등으로 인식하였다.⁵⁴⁾ 그러나 구체적인 군사전략에 관련한 내용은 부족한 편이다.

『태백음경』은 당나라의 李筮가 편찬한 것으로 用兵, 籌策, 攻城, 屯田,

54) 『李衛公問對』下. “不求大勝 亦不大敗者 節制之兵也 或大勝 或大敗者 幸而成功者也”; 同書. “吾謂不戰而屈人之兵者上也 百戰百勝者中也 深溝高壘以自守者下也”.

戰馬, 營壘, 陳圖 등에 관련하여 중요한 군사사상이 기재되어 있다. 군사모략, 즉 군사전략에 관련하여 전쟁을 전략적으로 도모하는 것은 권력의 일로서 군사에 달려 있다고 인식하였다.⁵⁵⁾ 즉 강력한 군대가 군사전략과 전술을 행하는 기초적인 요소라고 보았다.

전체적으로 수당시대는 文治를 강조하여 무를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전략적으로 방어중심정책과 북방민족에 대한 慰撫政策을 통하여 군사적 대응을 하였다. 전쟁을 최대한 신중하게 대하여야 하며,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속전속결전과 지구전으로 대응하도록 하였다. 적국에 대해 실전에 임하기 전에 정치·군사적 우위를 통하여 제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군사적 흐름은 송나라로 이어졌다.

宋代에서 元代에 이르는 시기는 한족과 이민족의 대립과 병존이 거듭된 시기로 정복왕조의 시대가 시작된 시기였다. 송나라는 文治主義에 치중하여 군사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 遼, 西夏, 金, 蒙古의 침입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군사적 역량과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정책에 치중하였기 때문이었다. 병서를 禁書로 지정하여 兵學이나 군사문제에 대한 연구와 정리를 금지하였던 송나라는 1043년에 이르러 고대병서를 결집하여 용병의 역사적 실례를 통해 陣法, 方略, 武器 등에 관하여 고찰한 『武經總要』를 편찬하였다. 『무경총요』는 군사이론과 군사기술의 종합서로 서문을 통해 체제 및 군사인식을 살펴보면, 군사에 관한 문제 혹은 토벌이나 전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변방, 방략 등을 정리하고, 전쟁이나 용병에 대하여 ‘以夷制夷’의 방식을 우선시하는 인식을 보여준다.⁵⁶⁾

송대 전략개념을 살펴볼 수 있는 저서로 『百戰奇法』이 있다. 『백전기법』은 저자미상의 북송말년의 저서로 고대병법을 기본으로 하되, 각종 전법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하였다. 『戰法總敍』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戰法상의 기본원칙을 열거하고 여러 전사에서 이 기본원칙과 부합되는 전례를 뽑아

55) 『太白陰經』卷1, 人謀上, 國有強富篇第5. “謀戰者 權之事 而強在兵”.

56) 『무경총요』卷1, 武經總要仁宗皇帝御製序.

그 타당성을 입증하였다.⁵⁷⁾ 『백전기법』은 군사문제에 있어 교육훈련과 將帥의 道理를 중시하였다. 병을 적절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전법교육이 중요하며, 군사기술과 규율을 교육하여 적과 대치하여 명령에 복종하고 지휘에 잘 응하도록 할 것을 주장하였다. 장수의 도리에 있어 신임, 위엄, 仁愛, 용감성 등을 강조하였다. 『백전기법』은 計略, 즉 戰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용병의 요체를 計로 삼고, 戰前에 반드시 敵情을 장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계책을 강구하여 병력을 출동시켜 작전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적과 대결할 경우에 용병은 특별히 신중해야 하며, 변화에 적용할 수 있는 탄력적인 병법의 운용을 제안하였다.⁵⁸⁾

부족간 전쟁과 대외확장전쟁으로 군사력 건설에 치중하였던 원나라는 군사사상 뿐만 아니라 군사문제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군사체제에 있어서 중앙집권적 경향이 강하였으며, 무기체계에 있어 화기와 화약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군사학에 있어서도 송·요·금·하대에 각 민족의 병학교류가 활발하였는데, 제 민족은 병서를 자신들의 문자로 번역하였으며, 한족의 攻守城戰法과 유목민족의 騎兵戰法이 혼재되어 병학연구가 활발하였다. 이를 집대성하는 입장에서 원나라는 강력한 기병을 기본으로 하여 기마전술, 기동력, 경계정찰의 강화, 선전심리전술 등을 개발하여 활발한 군사활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명대는 이전의 군사제도 및 군사사상의 우수한 점을 수용하여 衛所制를 실시하였다. 변강과 내지의 주요한 지구에 위소를 설치함으로써 朝廷과 邊疆을 방위하였다. 징병제와 모병제의 병행에 해당하는 성격의 위소는 屯田에 기반하였다.⁵⁹⁾ 위소제는 단순한 군사제도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명나라의 국가전략에 있어 주변국에 대한 대외정책의 근간이 되었다는 점에서 국가전략 차원에서 시행되었다고 할 것이다.

57) 『百戰奇法』戰法總敘. “每法既具 所以復引古將帥所行有合者證之 可謂極用兵之妙”.

58) 백기인, 1996, 위 책, 161~162쪽.

59) 金斗鉉, 1994, 『清朝政權의 성립과 발전』 『강좌 중국사』 IV, 지식산업사, 143~147쪽.

이상으로 춘추전국시대에서 명대까지의 군사적 전통과 군사문제를 대략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시대변화의 과정에서 군사전략 내지 국가전략의 개념이 어떻게 인식되었는가를 살펴보았는데, 종합적으로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공격적인 측면보다 방어적인 측면이 강조되었으며, 전쟁을 문치에 입각하여 통제하고자 하는 경향성도 강하였다. 또한, 군사문제를 경제, 정치의 측면에서 충분한 고려를 강조하여 군사전략에 앞서 정치전략의 충분한 시행을 통하여 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었다.

보다 충분한 연구결과가 있어야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중국사에서 전략개념의 인식은 시대적인 변천을 통하여 확립되었으며, 포괄적인 의미로 모든 인적·물적 조건을 포함하여 전개되는 전쟁수행의 방법이자 국가의 안전보장 및 부국을 위한 방책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군사전략과 국가전략에 대한 많은 고민과 정리의 노력이 있어 왔다. 이러한 노력은 병학이라는 학문체제로 정리되었으며, 각 시대별로 정리된 병학서를 살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청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사에서 편찬된 군사관련 서적은 총 1,304部 6,831권에 이르고, 현존하는 병서만 288部 2,106권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이다. 시기별로 周代에 52부 231권, 三國時代 34부 36권, 唐代 68부 237권, 宋代 104부 801권, 元代 이후는 더욱 많은 수량이 있다. 즉 기원전에 이미 231권이란 군사관련 서적이 편찬되었다는 점과 서구의 나폴레옹시대는 중국사에서 청대에 해당되는데 그 이전에 이미 엄청난 전문 군사관련 서적이 편찬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몇 가지 고려해보아야 할 점이 있다. 동양에서 서적이 편찬되는 것은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첫째, 官撰과 私撰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 병서같은 경우는 대부분 관찬에 해당된다. 국가의 차원에서 군사문제를 중시하고, 무기체계, 군사양성, 전쟁술, 국방 등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와 연구가 있었음을 반영한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 제도, 운영 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존립(안보)의 차원에서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여 다루고

있는 점이다. 둘째, 동양사(한국사와 중국사를 포함)에서 서적의 편찬은 이전의 저자가 편찬한 것에 대한 註釋을 달아 새로 편찬하는 경우가 많다. 註釋이란 원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달아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새로운 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논리성과 이론화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동반한다. 이는 군사문제에 관련하여 동양사에서는 이미 고대부터 이론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셋째, 관찬이든 사찬이든 서적편찬에 있어 광범위한 자료의 수집과정을 필수적으로 동반한다는 점이다. 유학에서 경전에 해당되는 문헌에 대해 고치지 않고 단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뿐이라는 전통과 함께 典據의 명시는 필수사항이었다. 즉 일시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방적인 견해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문헌자료를 충분히 습득하고 이를 일단 정리하고, 이에서 한 단계 발전되고 넓어진 내용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하였듯 이론화의 과정이 철저히 수행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4. 한국사 전략개념과 인식

한국사의 역사서적에 군사문제에 관련된 사항이 많은 점은 특이한 점이다. 『三國史記』,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등 연대기 뿐만 아니라 각종 官撰·私撰書籍에도 병학이라는 특정 항목을 설정하거나 별도의 항목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군사문제를 중시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⁶⁰⁾ 이외에도 병서라는 범주로 전문군사서적을 남겼다. 이러한 점은 한국사에서 군사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았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국가운영에 있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군사전략이나 국가전략의 개념이 상당히 존재하였을 개연성을 반영한다. 한국사에서 고대부터 중국의 선진적인

60) 강성문, 2000, 『한민족의 군사적 전통』, 불명, 175쪽.

전술 및 무기를 받아들여 한국에 적합하도록 변화·발전시키는 노력이 있어 왔다. 구체적인 전략용어의 사용사례와 전략개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도록 한다.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經國大典』, 『承政院日記』, 『大典會通』 등에 전략이란 용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한국사에서 전략이란 용어를 전략개념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략이란 용어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 한국사에서 전략 개념이 없었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 한국사에서 전략이란 개념을 어떠한 용어로 사용하였는가를 살펴보면, 중국사와 비슷하게 ‘兵學’, ‘武略’, ‘備邊’, ‘軍國’ 등의 용어로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 ‘備邊’과 ‘軍國’이 전략 개념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국사에서 전략이란 용어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중국사에서는 의미는 다르지만 부분적으로 확인되는데 비하여 한국사에서는 확인 빈도가 너무 적다. 확인된 사용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대기 자료로 전략용어가 확인되는 것은 『조선왕조실록』에서 단 한번 사용되었다. 이것도 일본측에 의해 작성되었던 『고종실록』이다. 『고종실록』은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작성된 것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개념에 의해 사용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1885년(고종 22) 조선의 관원과 영국의 선주가 회담하는 가운데 회담전략을 어떻게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지극히 근대적인 의미의 전략개념이라 할 것이다.⁶¹⁾

시대별로 전략용어의 사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려시대 윤관의 아들이자 명신이었던 尹彦頤이 妙淸의 난이 일어나자 올린 표문에 전략이란 용어가 확인되는 것을 제외하면 고려시대 전략이란 용어는 확인되는 바가 없다. 이때 윤언이가 사용한 전략이란 전투책략의 의미였다.⁶²⁾ 당시 中軍

61) 『高宗實錄』 高宗 22年 4月 3日·6日;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日記』 5, 高宗 乙酉年 4月 4日; 『李文忠公全書譯署函稿』 卷17, 論巨磨島事·朝鮮國王答書·朝鮮派員與英國船主晤談戰略.

을 지휘하여 서경군사의 양식이 고갈될 것을 전략으로 삼았다는 내용으로 이는 전투책략, 모략 등을 의미한다.

이후 조선시대 전략이란 용어가 몇 차례 확인되는데 1628년(인조 6) 정묘호란으로 후금의 침입을 받아 조선이 후금과 화약을 맺어 전쟁을 수습하고자 하였다. 이때 幼學 李蕃吉이 上疏하여 和議를 파기하고 戰畧事를 수습할 것을 주장하였다.⁶³⁾ 이때의 전략은 전투에 관련된 방략, 방책의 의미를 가진다. 이후 다산 정약용이 두 아들에게 남긴 편지글에 『備禦攷』 등의 문집정리에 있어 유의사항을 알리며, 戰伐이나 朝聘 같은 것을 한 종류로 묶어서 戰略考의 예를 따르도록 언급하였다. 그러나 실제 전략고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현존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지만, 戰伐 등의 언급이 보이는 미루어 군사관련 문제를 모아 둔 것으로 짐작된다.⁶⁴⁾ 또한 영조대에 편성되었던 『東輿圖志』의 항목명에 ‘戰略’조항이 있다. 그러나 내용상 전략개념을 다룬 것은 아니다. 한국의 지도제작에 있어 대체로 군사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는데, 『東輿圖志』에 武備篇이 있어 ‘城池’, ‘戰略’ 조항이 설정되어 있고, 『大東地志』에 독립항목으로 ‘典故’ 조항이 있어 외국의 침략과 역대 전투를 기록하였다. 그 외에도 국방과 관련된 山水, 城池, 營衙, 鎭堡, 烽燧, 倉庫, 津渡, 牧場 등의 내용은 상세히 기록하여 국방을 중시하는 지리적 사고를 짐작하게 한다.

본격적으로 한국사에서 전략이란 용어가 현대서구적 개념과 유사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의 침투가 본격화된 고종 이후이다. 1867년(고종 4) 1월 16일 『일성록』 기록에 의하면 左參贊 申觀浩가 軍務에 관련한 6가지 조항을 아뢰었는데, 전쟁을 결의하면서 전략을 강구하지 않고, 무기를 수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⁶⁵⁾ 신관호의 언급에서 전략

62) 『東文選』 卷35, 表箋, 廣州謝上表.

63) 『癸川日錄』 卷4, 仁廟 戊辰 七月. “初四日幼學李蕃吉上疏 罷和議修戰畧事”.

64) 『與猶堂全書』 第1, 詩文集 卷21, 文集, 書, 寄兩兒. “若戰伐朝聘爲一類 依戰略考之例”.

65) 『日省錄』 高宗 4年 1월 신미. “今決意欲戰 而不講戰略 不修戰具 則豈非危道耶”; 『公車類編』(奎 12365-v.1-8) 左參贊 申觀浩 上疏.

은 현대적인 전략개념과 유사한 개념사용이라 할 것이다.

1903년에서 1905년까지 外部와 全羅道觀察使, 各郡 郡守 사이에 오간 報告書, 訓令 등을 모아 놓은 『外部全羅南北道來去案』 第1冊에 日軍戰略上 土地使用 公廨借接 營幕建造 通信機關問題 보고 훈령이 있다.⁶⁶⁾ 당시 외부는 일본을 비롯한 서구열강과 빈번한 접촉을 하였던 부서로 자연스럽게 전략이란 개념을 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05년 관보에 우편물에 기재된 군사전략 관련문자의 사건을 알리는 내용이 있다.⁶⁷⁾ 이때의 전략은 군사문제에 관련된 내용이란 의미로 사용되었다.

점차 전략이란 용어는 군사문제 뿐만 아니라 제반 분야에 관련하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924년 발표된 동아일보 성토문에 의하면 사회투쟁에서 벗어나지 말고 전략적으로 투쟁하자는 선동적인 내용으로 활용되었다.⁶⁸⁾ 在日本東京朝鮮留學生學友會 및 在日本東京朝鮮留學生女子學興會 등 사회주의계열에서 발표한 성토문은 동아일보가 日本의 帝國主義的 資本閥의 前衛隊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성토문이었다.

전략이란 용어는 점차 확대 사용되어 『朝鮮獨立宣言書』에 등장하기도 하였다.⁶⁹⁾ 1919년 3월 17일, 소련의 니코리스크에서 朝鮮國民議會長 우, 아, 文, 副會長 金哲勳, 書記 吳昌煥의 명의로 발표된 독립선언서에 “思惟컨대 朝鮮은 其 位置가 極東問題에 있어서는 地理及 戰略的 關係上 東亞細亞 問題의 關鍵이다. 故로 極東問題의 解決은 單純히 朝鮮에 關한 問題를 改正한 境遇에 限하여 此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지극히 현대적인 전략개념으로

66) 『外部全羅南北道來去案』 奎 17982의 3-v.1-2.

67) 『官報』 奎17289. “4. 廣告. 現接鏡城郵遞司長代辦朴昌植의 第四十一號報告書則內開에 光武八年十一月二十七日 本司遞夫崔道逸이 還到所告內에 城津司에서 發送한 本司到着郵物을 本郡南十里程에서 逢着俄兵하고 該郵物을 沒數被奪이로라함읍기 卽往俄官所住處하고 詰問事由함은즉 俄官言內에 郵物中の 或有戰略拘碍之文字 故로 卽送烟秋라함니 屢言出給함오되 終不應從키에 通牒于城津司함야 該見奪郵物度數를 調査함과 左開報告라함엇기 茲에 廣告事 光武九年三月一日 通信院 左開”.

68) 『동아일보 성토문』, 1924. 1. 3.

69) 『朝鮮獨立宣言書』, 독립기념관.

사용하고 있다. 1945년 朝鮮總督府官報에 의하면 “戰略上 官廳이나 公署가 一般의 至急通話 또는 普通通話를 중지시킬 수 있는 予約通話規則(府令 134号)이 공포된 바, 5일부터 시행되다”는 내용이 있다.⁷⁰⁾

이상의 확인을 통하여 한국사에서 전략이란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며, 일제의 침략이 시작되면서 전략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체적으로 단편적인 전략용어의 사용은 전쟁술, 전투책략, 모략 등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며, 개항을 전후한 시점부터 점차 전략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전략용어는 현대적인 의미의 전략용어로 사용되고, 보다 넓은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전략개념으로 사용된 용어는 ‘備邊’, ‘武略’, ‘謀略’, ‘軍國’, ‘兵’ 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전략용어 자체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확인되지만, 서구나 중국사에 비하여 국가전략, 군사전략 등의 개념이 엄연히 적지 않게 존재하였을 한국사에서 전략개념을 어떻게 인식하였는가는 중국사의 전략개념에 대한 인식에서 활용하였던 방법과 동일하게 병학서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한국사에서 병학서는 현존하는 것으로는 조선시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병학서 자체가 무기나 전쟁을 포함하여 각종 군사 문제에 관해 폭넓게 기술한 서책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과거의 전쟁에서 축적한 경험의 토대에서 전쟁의 양상, 군사작전이나 전투법, 군대편성과 운용, 병기, 진법과 군사훈련, 공격 및 방어법, 명령법 등 각종 전략, 전술이 응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⁷¹⁾

특히,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文治主義 사회를 이룩한 조선은 병서를 단순 군사전략서로 인식하지 않았다. 병서의 편찬과정에 참여한 인적 배경을 살펴보면 당대 최고의 학자나 문장가 그리고 전략가들로 구성되었다. 최고권력자의 지시(왕명), 관계적인 등록형식, 개인 사찬

70) 『朝鮮總督府官報』, 1945. 6. 2.

71) 정해은, 2004, 『한국전통병서의 이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2쪽.

등 다양한 형식으로 편찬된 병서는 수록 내용에 병략은 물론 역사, 철학, 문학 등이 고스란히 담긴 인문서의 결정판이었다.

세조는 『歷代兵要』 서문에서 전쟁을 통한 국방관념을 제시하여 兵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⁷²⁾ 즉 역대 전쟁을 통해 전술이나 군의 운용에 통달한다면 싸우지 않고도 적을 이기는 無勝의 경지에 이른다는 관점이었다. 역대병요는 중국의 상고로부터 명나라 초기까지 군사문제 및 조선태조의 고사 등 역대의 병략에 뛰어난 고사를 모아 엮은 책으로 국왕인 세조가 직접 편찬을 명하여 李石亨이 全羅道觀察黜陟使로 있을 때에 都事 趙枚와 光州 牧使 宋休明 등과 함께 엮어 간행한 책으로 중국 고대로부터 明太祖 得國까지 역대 병략에 뛰어난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조선 太祖가 南·北의 외적을 물리친 기사 11편까지가 연대순으로 실려 있다.⁷³⁾ 兵書라기 보다는 역대 兵略에 뛰어난 역사적 사실을 간추려 놓은 책으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戰爭 通史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럼, 한국사에서 전략개념에 해당되는 용어는 무엇이 있을까? 비단 현대적인 전략개념을 대입하지 않더라도 군사문제와 국가안보 등에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인식하였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접근은 먼저 군사문제에

72) 『歷代兵要』(奎貴 5070) 序.

73) 『역대병요』의 목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中國上古時代에 관한 제1권은 落峽이다. 권 2: 魏文侯以吳起爲將, 齊孫臏救趙, 齊孫臏敗魏師殺龐涓虞太子申, 趙藺相如叱秦王, 燕樂毅下齊, 楚項羽救趙, 沛公定關中, 項羽沛公會鴻門, 漢王就國, 漢王拜韓信爲大將, 董公說漢王, 漢王滅楚卽帝位 등 24항의 兵略기사. 권3: 匈奴圍漢祖於白登, 漢高祖執韓信, 漢耿弇平齊, 漢光武破龐萌 등 兵略 18개항. 권4: 漢光武平隗囂, 漢諸葛亮伐魏敗還 등 23항. 권5: 漢諸葛亮伐魏敗司馬懿殺張轄, 秦王堅伐晉大敗走還 등 28항. 권6: 落峽. 권7: 梁侯景反陷臺城湘東王繹等誅之, 唐秦王世民浮鄭王世充夏王竇建德獻于太廟 등. 권8: 唐趙郡王孝恭李靖滅梁, 唐高宗遣裴行儉討突厥 등. 권9: 唐臨淄王隆基討韋氏, 唐安祿山反肅宗討平定, 唐興吐蕃盟吐蕃劫盟 등. 권10: 唐德宗平淮西, 唐晉王李存勗破梁夾寨, 晉王伐梁大破之又擒劉守光 등. 권11: 吳徐溫敗梁兵, 宋太祖遣曹彬平江南, 契丹主伐高麗, 高麗姜邯贊大破契丹蕭遜寧 등. 권12: 落峽. 권13: 蒙古世祖滅宋, 元世祖征日本, 高麗破哈丹, 我太祖平紅巾賊, 我太祖走元納哈出, 我太祖大破元德興君兵, 我太祖取元兀刺城, 我太祖取元東寧城, 我太祖破倭賊于智異山, 我太祖破倭于海豐, 我太祖破倭于海州, 我太祖大破阿其拔都於雲峯, 我太祖破倭賊于兔兒洞, 我太祖大破女真胡拔都 등 兵略 기사가 실려 있다.

대한 전통시대 한국인의 인식을 파악해야 할 것이며, 그들이 군사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표현하였는가를 통하여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군사관련 서적인 병서가 현존하는 조선시대로 한정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조선이 건국된 이후 국가체제와 제도정비를 전적으로 담당하였던 인물은 정도전이었다. 고려말 사회적 혼란을 일소하고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도전은 군사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陣法』을 저술하였다. 현전하는 최고의 병서인 『진법』은 중국 삼국시대의 제갈량이 지은 『八陣兵法』을 기초로 하여 대명관계의 악화로 요동정벌을 준비하던 입장에서 저술하였다. 『진법』은 2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도 구체적인 전투와 진법구성에 관련된 내용이 많아 전술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병사들의 행동 통일이나 정신 무장을 강화하는 훈련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 점이 특징이다.⁷⁴⁾ 또한, 정도전이 구체적으로 『진법』을 통하여 군사훈련의 강화와 관병화를 시도하였던 점은 병권의 중앙집권화를 목적인 것으로 군사전략의 측면에서 정도전은 사병혁파를 통하여 강력한 중앙군을 양성하고, 국왕권에 의한 병권의 완전한 장악을 의도하였다.⁷⁵⁾

조선 건국기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정도전의 군사전략은 공세적인 측면이 강하였으며, 이는 요동정벌계획으로 나타났다. 특히, 명의 외교적 간섭에 대응하고 여진족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선의 공세적인 군사전략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세종대에 이르면 국가 전반에 걸친 안정과 성장을 바탕으로 국방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하게 된다. 조선은 군사력을 동원하여 대마도정벌 및 야인정벌을 수행하였으며, 방어시설물에 대한 조정을 하였다. 정도전의 요동정벌계획과 같은 공세적인 군사전략도 근본적으로 방어론에 근거한다고 할 것이다. 대마도정벌과 야인정벌도 왜구와 야인의 침입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조선의 방어론은 전

74) 정해은, 위 책, 63~73쪽.

75) 河且大, 1999, 「조선초기 군사정책과 병법서의 발전」 『한국군사사논문선집』 4,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108~114쪽.

통적인 淸野入堡策을 바탕으로 한다. 고구려의 산성체제를 바탕으로 한 방어론에서 시작된 전통적인 청야입보책은 조선까지 이어졌으며, 조선초기엔 築城論, 邑城論, 山城論 등으로 논쟁되었다.

세종대 야인정벌을 통하여 조선의 국경선을 확정하였던 崔閔德의 경우, 구체적으로 축성론을 주장하였다. 최윤덕은 국가평화시의 국방에 있어 최우선은 축성이라 인식하고, 축성이 백성들의 노역이 많이 소요되는 대역사였지만,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역사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였다. 즉 ‘先築城後保民’의 주장이었다. 최윤덕의 축성론은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방위시설에 중점을 두었다. 內地의 축성에 대해서는 시기의 적절함을 고려하여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다.⁷⁶⁾ 최윤덕의 경우에 당시의 국방전략을 축성론에 기반한 방어론으로 인식하였으며, 단순 군사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민생의 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세종대의 국방인식을 좀더 살펴보면 당시 국방의 최대 관심사는 북방의 야인문제였다. 남방의 왜구문제는 대마도정벌과 삼포개항 등으로 성공적으로 대처하였지만, 북방의 야인은 지속적으로 변방을 침입하여 항구적인 대비책이 요구되었다. 최윤덕의 경우, 북방문제에 대해 양계지방을 중심으로 축성론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세종이 평안도 방어에 있어 고식적인 전략이 아닌 영구적인 전략을 질문하자 堅城의 축성을 강조한 점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⁷⁷⁾ 이러한 세종대의 북방군사전략은 이후 申槩에 의한 行城論과 梁誠之의 要邑論으로 계승되었다. 신개의 행성론은 북방에 장성을 축조하여 전통적인 청야입보책에 의한 대응을 주장한 것이었으며, 양성지의 요읍론은 변방방어에 실패하였을 경우 우려되는 전략적인 손실을 대비하여 중요 요충지의 읍성을 중심으로 방어전략을 구상하였던 것이다.

세종대의 방어론을 포함한 조선전기의 전반적인 군사전략은 關防論으로 파악할 수 있다. 관방이란 국방을 위한 일반적인 방어시설을 지칭하는 것

76) 『世宗實錄』卷49, 世宗 12年 9月 庚子.

77) 『世宗實錄』卷67, 世宗 17年 3月 庚子.

이며, 구체적으로 관방을 군정의 주요한 한 요소로 인식하고 정리한 시대는 조선후기였다.⁷⁸⁾ 그러나 관방론을 중심으로 군사전략을 구상한 것은 조선전기부터였으며, 다양한 관방론의 결과로 鎭管體制가 등장하여 조선의 기본적인 국방체제로 확정되었다.

군사문제와 관련하여 ‘備邊’을 군사전략 개념으로 사용하였던 대표적인 인물로 조선초기 梁誠之가 있다. 그의 군사의식은 『軍政十策』에서 확인된다.⁷⁹⁾ 嚴軍法, 恤軍戶, 審軍情, 實軍額, 簡軍令, 定軍制, 整軍器, 備軍門, 護軍丁, 閱軍士 등으로 구성된 양성지의 군사인식은 실제 전투방법이나 전술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군사문제를 접근하였다. 그의 군사전략은 단순한 군비확장이나 승리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등 제반 분야의 유기적인 관련성을 바탕으로 강조하는 가운데 정립된 것이다. 조선초기의 국방사상이 대체적으로 부국강병의 지향성을 가지는 점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국가의식과 민족의식 또한 추구하고, 세세한 군정개혁안을 통하여 민족의 단합, 부패방지, 대민정책 등을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종대에서 세조대에 이르는 시기의 군사전략과 국방정책은 대체로 방어론에 입각한 축성론과 관방체제에 집중되었으며, 진법훈련 및 장수의 자질, 무기체계에 관련된 종합적이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이는 당시의 주변국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조선의 군사제도와 사회변화를 반영한 것이었다. 명의 건국과 여진족에 대한 공략, 요동에 대한 영향력 강화, 명나라 내부적인 靖難의 變 등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의 혼란과 군사활동의 빈번함

78) 車勇杰, 1999, 「朝鮮前期 關防施設의 整備過程」, 『韓國軍事史論文選集』 4,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83~88쪽. 관방이란 적의 침입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설치된 적극적인 방어시설물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피난을 목적으로 한 山城類와는 구별된다. 물론 한반도의 지형상 산악이 많아 이를 이용한 郡城, 邑城, 鎭城, 山城 및 行城 등 다양한 城郭類가 있지만, 인위적으로 關門을 설치한 것과 각종 樹木을 활용한 木城 및 여울 등도 하나의 방호시설로 關防의 범주에 들어간다.

79) 『訥齋集』 卷3, 奏議, 軍政十策.

과 아울러 왜구의 지속적인 준동이 외부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였다. 내부적으로 왕자의 난 등을 통한 정치적 격동기가 있었으며, 사회적으로 科田法의 시행과 國役體系의 변화와 사회신분적인 변화과정이 맞물리며 당시 지배층의 국가전략차원에서 논의되었으며, 세조대에 조선의 軍事·軍役體系는 五衛體制로 확정되었다.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조선은 조공체제를 인정하고 명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함으로써 주변국의 위협요소를 제거하고자 하였으며, 내부적으로도 왕권의 정당성을 부여받하고자 하였다. 군사적으로 침략의 위협이 있었던 야인과 왜구에 대해 시기별로 적극적인 정벌과 항구적인 수성전략으로 대처하였다. 군사전략의 중요 요소인 군역과 무기체계 및 관방시설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개발과정을 거쳐 각종 화약무기를 생산하고 제도화하였다.

세조대를 거치면서 정비되었던 진관체제의 국방체제는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과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국방체제로 전환될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진관체제는 전국토 방위체제이므로 많은 군사가 동시에 필요했고,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인을 확보해야 했다. 하지만 군역기피 등의 현상으로 16세기 이후 대립제가 성행하면서 군사력의 실질적인 저하를 초래하였으며, 군사문제에 어두운 문관수령의 증가로 군사지휘권의 효율적인 수행이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진관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당시 지배층은 제승방략체제를 구상하였다.⁸⁰⁾ 삼포왜란을 계기로 일본의 침략규모가 커지면서 조선은 왜적의 주요 침입로에 병력을 집중시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방위전략으로 제승방략이 등장하였다. 즉 전 국토의 평면적인 군사배치를 지양하고 여러 진관의 군대를 제일선 방어에 집중 배치하는 시스템이었다.⁸¹⁾ 제승방략의 채택으로 인하여 조선의 군사전략은 새롭게 정리되었는데, 군역체계, 동원체계, 군사시설물의 재배치, 무기체계의 변화 등이 동반되었다.⁸²⁾

80) 許善道, 1973, 『制勝方略 研究(下)』 『진단학보』 37, 15~21쪽.

81) 정해은, 위 책, 45쪽.

제승방략의 군사전략으로 국방을 인식하고 준비하였던 조선은 임진왜란을 통하여 새로운 군사전략을 구상하게 된다. 임진왜란 때 조선이 이식하였던 제승방략의 문제점은 서애 유성룡의 언급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내가 밤낮으로 왜군들이 올라 염려하여 대체로 변방을 수비하는 일에 대하여 생각한 것이 있으면 어리석은 도모를 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번은 영의정과 함께 정부에 있을 때에 같이 앉아서 왜적의 난리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상의하였다. 내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임진년의 난리로 국사가 그르쳐졌으니 당시의 대신들은 정말 그 죄를 피할 길이 없으니, 구구하게 스스로 변명해 봤자 다만 허물만 더할 뿐이다. 그러나 그 당시의 실정을 대략 한두 가지라도 진술하여 너희들이 알도록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당초에 黃允吉과 김성일 등이 일본으로부터 돌아와서 두 사람이 적의 정세를 말한 것은 서로 달랐다. 내가 하루는 친히 김성일을 만나보고 묻기를, “그대가 말한 것이 황윤길과 다르니, 만일 왜군이 실지로 온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였더니, 김성일이 말하였다. “나도 어떻게 왜군이 끝끝내 오지 않는다고 기필할 수야 있습니까. 다만 황윤길의 말이 너무 지나쳐 꼭 왜놈들이 우리 사신들의 뒤를 바로 쫓아오는 것 같아 인심이 흉흉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했을 뿐입니다.” “나는 곧 왜병들이 꼭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국가가 평화스럽게 지내 온 지가 오래되어 변경 지방에 난리가 날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 가지 일로써 말한다면 동해에서 생산되는 고기가 요사이 서해로 이동하여 한강까지 오는 일도 있다 하니 이것도 바다의 氣流가 옮겨져서 그런가 염려됩니다.” 전라 수사가 결원이 되자 정읍현감 李舜臣을 추천하여 대치하게 하였다. 임진년 봄에 경상우병사 曺大坤이 너무 늙어 자기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 하여 筵中에서 李鎰로 조대곤을 교대하도록 요청하여, 그로 하여금 기일보다 앞서 내려가서 국경의 수비를 조치하여 창졸간에 일어나는 일을 대비하게 하였는데, 병사를 맡은 관리가 어렵게 여겨 실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경상·전라 두 도의 제승방략은 군사를 나누는 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선대

82) 허선도, 1973, 『제승방략 연구(상)』 『진단학보』 36, 59~70쪽.

로부터 내려오는 진관 제도를 부활시켜서 지방마다 점차 보급 실천시켜 변란에 대비하도록 요청하여 본도에 내려 보냈으나 행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왜병들은 조총을 잘 쓰는데 우리나라는 승지총통만 가지고 적을 대항할 수 없었다. 이때에 왜국에서 헌납한 조총이 새로 도착하였으므로 장계를 올려 訓練副正 李鳳으로 서울의 上番軍士를 통솔하여 조총 쓰는 법을 훈련시키도록 간청하였는데, 관계자들이 다 헛된 일로 생각하여 시일이 지나니 흐지부지되어 끝내 이것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니 왜군들이 쉽사리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방비를 대만하게 한 것은 사실 나의 본뜻이 아니었다.⁸³⁾

유성룡의 이러한 언급은 군사지휘관의 교체, 제승방략의 폐지와 진관체제의 복귀, 조총연습의 촉진을 통한 무기체계의 변화, 요충지의 축성 등 방어시설의 구축 등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유성룡은 임진왜란시 조선군의 패배원인을 분석하여 군사지휘관의 능력과 지도력을 강조하고, 변방의 국지전을 염두에 둔 방어전략인 제승방략이 전면전의 성격이 강한 임진왜란에 적합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중앙과 지방의 효율적인 연결과 지휘체계가 확립되지 못하였던 제승방략체제는 제1방어선이 무너질 경우, 제2방어선을 구축할 시간적, 인적 여유가 없었다. 이미 유성룡은 제승방략의 문제점을 선조에게 알리고 진관체제의 복구를 주장했었다.⁸⁴⁾ 유성룡을 비롯

83) 『西厓集』 卷16, 雜著, 書壬辰始末事示兒輩. “吾亦豈必倭之終不來耶 但黃言太重 似若倭踵使臣而來 人情洵洵 故如此言之耳 余日夜憂倭兵之至 凡於備邊一事 苟有所見 不敢不盡其愚 嘗與首台在政府 同坐議倭變之有無 余曰 吾則以爲倭兵必來 今國家昇平日久 邊患之作 不可不慮 且以一事言之 東海產魚 近日移於西海 以至漢江亦有之 此亦恐海氣遷移而然也 全羅水使闕 薦井邑縣監李舜臣代之 壬辰春 以慶尙右兵使曹大坤年老難策應 於筵中請以李鎰代大坤使之先期下去 措置邊備 以擬倉卒 而主兵之官難之而不行 又以兩南制勝方略 分軍失宜 請復祖宗鎮管之制 使之鱗次待變 事下本道而不能行 又以倭兵善用鳥銃 而我國但有勝字銃筒 不可敵 時倭國所獻鳥銃新到 啓請以訓練副正李鳳領京上番軍士 使之訓習鳥銃 而議者皆以爲迂日久悠悠 竟亦無效 然則以倭不來而緩於防備者 實非臣之本意也 但區區愚見 以爲人心先動 則智勇皆竭 必須先爲鎮定 然後凡事可以措手 且聞南方築城 或未得形勢 而徒勞民力”.

84) 『宣祖修正實錄』 卷25, 宣祖 24年 10月 癸巳.

한 조선의 국가운영책임자들은 국토방위전략을 진관체제, 제승방략, 진관체제 등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였다. 이러한 군사전략이 세워지면 이에 적합한 무기체계, 군역체계, 군사교리 등이 수정 보완되었다.

임진왜란이 한창 진행되는 동안, 조선은 戚繼光의 浙江兵法를 적용하여 조선의 실정에 맞도록 보완하였다. 구체적으로 三手兵을 근간으로 한 훈련도감이 세워졌으며, 束伍軍이 편성되어 지방의 방위를 담당하였다. 또한 각종 군사교리와 병법서가 출간되어 군사적 발전을 도모하였다. 척계광의 『紀效新書』를 줄여서 엮은 『兵學指南』은 조선후기 군사 조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병서였다. 임진왜란시 평양성전투에서 조선군은 새로운 전법을 경험하게 된다. 명군이 佛狼機, 虎駿砲, 단병기인 長槍, 狼筈, 鎗鈹 등의 무기를 조합하여 왜군에 효율적으로 적용하였던 것이다. 당시 명군이 구사한 화기의 위력과 단병기의 효과는 임진왜란 초기 왜군을 막지 못하였던 조선에 새로운 병법 및 군사체제로 인식되었다. 특히, 전쟁중에 병력동원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 조선에 있어 『기효신서』에서 제시한 병사선발의 원칙은 천인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을 군역자원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돌파구로 인식되었다.⁸⁵⁾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군사전략의 전반적인 정비를 통하여 국방체계를 정비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병서가 편찬되었다. 병서의 편찬은 단순한 군사서적의 편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군사전략의 이론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국제정세 및 국내의 사회경제적 요소를 고려한 국방 전반에 대한 분석과 인식에 기반하였다.

17세기에 접어들면서 조선은 새로운 전법의 모색과 병서간행의 경향성을 보였다. 특히 광해군대 深河전투의 패배는 對騎兵전법의 모색을 필요로 하게 하였으며, 병자호란 이후 『기효신서』를 재간행하고 각종 화기의 발달을 초래하였다.⁸⁶⁾ 북벌론의 형성으로 조선은 군사문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85) 노영구, 2002, 『조선후기 병서와 전법의 연구』, 서울대 국사학과박사학위논문, 36~51쪽.

86) 노영구, 위 논문, 106~120쪽.

노출하였으며, 각종 중앙 군영을 창설하여 도성방위론에 입각한 군사전략을 채택하였다.⁸⁷⁾ 도성방위론은 군사전략의 측면과 함께 정치적으로 정권유지의 측면도 있어 숙종대 이후 영조대 『수성절목』의 반포와 수도방위체제가 재편되었으며, 정조대에는 화성건설로 이어졌다. 이후 19세기 전반까지 중앙의 군영은 정치체제의 변화와 연관되어 변화를 거듭하였다. 조선후기의 군사전략에서 중요한 한 흐름은 海防論의 지속적인 강조였다.⁸⁸⁾ 이는 조선의 전통적인 대외방어체제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전의 소극적인 방어론과 달리 적극적인 방어론의 측면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조선의 경우, 군사전략을 인식함에 있어 국제정세와 국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인식하였다. 또한 군사문제의 제반 분야, 즉 무기체계, 군사조직, 군역체계, 교리정리 등을 총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시대에 따른 군사전략을 국방체제로 정립하였다.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와 주변 정세의 변화는 국방체제의 변화를 요구하였으며, 조선의 지배층은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여 진관체제에서 제승방략체제로, 제승방략체제에서 다시 변형된 진관체제로, 또한, 임진왜란 이후 속오군체제로, 병자호란 이후 도성방위체제와 해방론의 각종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현실에 적용하였다. 즉 한국사에서 전략용어 자체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전략개념에 해당하는 관방, 군국, 방략 등의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전략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치, 군사, 사회, 경제, 과학 등의 분야에 걸친 개념으로 인식하여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용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국가전략, 군사전략 등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개념이자 국방체제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87) 이근호, 1998, 「숙종대 중앙군영의 변화와 수도방위체제의 성립」 『조선후기의 수도방위 체제』, 서울학연구소, 15~25쪽.

88) 이만웅, 1995, 「18세기 강화도 수비체제의 강화」 『한국사론』, 서울대 국사학과 참조.

5. 맺 음 말

이상으로 동양사에서 군사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하였는가를 전통 시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요약은 본문으로 대처하고, 군사전략 내지 군사이론의 연구에 있어 역사학적 관점에서 향후 연구과제를 언급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세계사의 흐름에서 동양사회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역사는 근대이전까지 중심적인 역할과 위상을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과학 및 인문학에 있어 제반 정리상황은 근대서구학문을 중심으로 정리 및 종합하고 있다. 물론 학문의 과학적이고 이론화되는 점에서 유용하고 논리성이 명확하기에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 있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서구학문의 제반 이론을 대입하여 분석하고 정리하려고 하지만, 서구사회의 사회환경과 역사성에서 정립된 이론이 한국사회의 사회환경과 역사성에 명확하게 적용되기 쉽지 않다. 이는 한국사회의 역사·지리적 환경에서 이어져온 전통이 일시적으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돌이키기 어려운 질곡과 왜곡을 경험하면서 정체성 없는 현대사의 흐름을 보이면서 무분별한 서구화과정을 강요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되었더라도 내면에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역사적 전통성은 사회 전반에 잔존하여 면면히 흐르고 있으며, 이를 무시하고 합리성으로 치장한 교육을 통하여 서구적 전통과 문화를 강제하였다. 이는 가슴은 한국문화의 전통으로 자리하는데 머리는 서구문화의 지식으로 무장한 형태로 가슴과 머리가 따로 움직이는 현대 한국인의 행동양태와 비슷하다고 할 것이다.

한국의 군사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고유의 군사적 전통과 군사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근대화과정과 일제강점기를 통하여 망각하게 되었다. 일제치하에서 일본의 군국주의적 군사문화를 강요받았으

며, 해방 이후 미국일변도의 군사제도 및 문화를 여과없이 도입하여 한국의 군사문화를 세우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사문화이든 어떤 문화이든 간에 문화의 새로운 정립은 이전까지 도도히 흐르는 전통의 바탕위에서 문화적 변용과정을 거쳐 발전된 문화를 수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군사문화뿐만 아니라 학문분야 전반이 그러할 것이다.

전략문제에 관련하여 중국사와 한국사에서 전략에 해당하는 개념은 서구의 Strategy 개념이 발생하여 발전하는 과정보다 보다 오래고 정치하게 발전되어 왔다. 단지, 연구자들의 무지와 게으름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을 뿐이다. 실제 군사관련 서적의 방대한 분량을 접하면 책목을 확인하는 순간 연구자로서 압도당하고 실제 업무를 내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인력의 확충과 연구방법의 정립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연구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단순히 서구보다 나은 동양이나 한국의 모습을 찾자는 의도가 아니다. 전략, 군사전략의 연구에 있어 보다 넓은 연구분야와 자료를 그냥 내버려 두고 인류의 지적 발전을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양사에서 전략개념을 보다 연구한다면 전략연구에 있어 범위와 내용은 기존 연구성과를 확장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사분야의 군사문제를 기존 군제, 군역, 제도사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본질적인 군사사상과 이론분야에 대한 연구로 연구 분야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개별 인물별 정리와 함께 전쟁사 일반에서 출발하여 전쟁의 사회사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원고투고일 : 2006. 9. 28, 심사완료일 : 2006. 11. 16)

주제어 : 전략, 개념, 병학서, 병학, 국방체계

<ABSTRACT>

A Intial Study about an the Strategy Concept of East Asian Countries

Kim, Kyong-rok

The word to show the practical use with various meaning does not exist in modern society as the strategy. The strategy, the soldier vocabulary is used for National Strategy, Grand Strategy, the policy to scheme the safety of the nation to wide meaning in the wartime or peacetime. And used for the operation of the military strength to get the victory in the war to narrow meaning. The strategy, to narrow meaning is the power because the operation technique or the science of the military strength.

A period break about such strategy concept is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and is the period break which commits Western Europe wholly of the flame to do the natural disposition. The world history is not the history of West. 18th century former time's history was led by China and north nation. The war to determine the destiny of the nation happened in many place of the world and have been historically always. The war was intense and happened in an ancient East society so that war was complex. The strategy concept has the period with the space. The strategy concept can distinguish in the side of the space with East to West and distinguish in the side of the time with premodern to modern. Existing research explains the strategy begins in Greece and at the modern times that were accomplished. We have the limit not to reflect a total appearance of a strategy concept such explanation. There was a strategy concept though the

vocabulary to be the strategy East social did not exist. A strategy concept of China was formed through many war. A strategy concept of China was gathered at a tactics book and was succeeded. The concept to correspond to a strategy concept is the back of the weapon system, national defense system, military science system. Many war happened from the ancient and the national defense system developed Korea. The national defense system was changed gradually to a strategy concept and was related with the politics with the change of the society. Korea set up an every kind soldier strategy and applied this to reality. There was the strategy concept though the vocabulary to be the strategy was not used in the korea history. Such strategy concept was called as the name of the '*Gunkuk*(군국)', '*Gwanbang*(관방)', '*Bibyeon*(비변)

Key Words : Strategy, Concept, Military Science Book, Military Science, National Defense System

K C I